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일상의 기적에 대하여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여법(如法)하거나 한 것입니까.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한 이야기를 불법(佛法)의 이름을 참칭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대낮의 잠꼬대

위산(鎭山)의 영우(靈祐) 771~853는 본래 인적이 끊긴 험준한 산 속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도토리, 밤을 주으며 살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집을 엮고 집을 지어주었지요. 황제는 이곳에 동경사(東慶寺)란 이름을 내렸고, 정승 배후(裴休)까지 찾아와서 현묘한 진리를 물었습니다.

간, 저리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스승 위산이 설핏 낮잠이 들었습니다. 양산이 모르고 방문을 열었고, 문고 리소리에 잠이 깬 위산은, 내색을 않고, 벽 쪽으로 돌아누웠습니다. 양산이 불면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어찌서 낯선 사람 대하듯 격식을 차리십니까." 스승은 잠이 그제서야 깬 척 몸을 뒤척였습니다. 양산이 문을 닫고 방을 나가려 하자 위산이 불러 세웠습니다. "나 이제, 막 꿈을 꾸고 있던 참이네. 무슨 꿈인지 들어볼 텐가." 양산이 자세히 들겠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위산이 입을 열다 말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자네가 어디 한번 맞추어 보게나." 양산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세숫대야에 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마친 위산이 자리를 고쳐 앉을 판인데, 또 다른 제자 향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위산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 중이었지. 이만저만한 기적이 아니야." "제가 비록 저 아래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위산이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세" 하고 자리를 고쳐 앉았고, 향엄은 나가서 차를 한잔 받쳐주고 왔습니다. 위산은 파안(破顔)했습니다. "너희들의 지혜와 신통은 사리불(舍利弗 · Sariputra)과 목련(目連 · Maudgalyayana)을 넘어섰다." 이것이 세 사람이 벌인 기이한 연극의 전말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수수께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을 좀 늘어놓겠습니다.

이라는 중요(重要)와 화쟁을 자신있게 설파한 사람이 조선불교사상 다시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무슨 배장으로 무시할 것입니까. 행적을 보면 파천황의 건달같은데, 업적을 보면 크고 위대한 사람. 이 두 말레마 앞에서 역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한편 신화 속에 모셔놓고, 한편 금기 속에 가두어두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효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높고 심오해서, 너무 복잡하고 치밀해서, 사람들은 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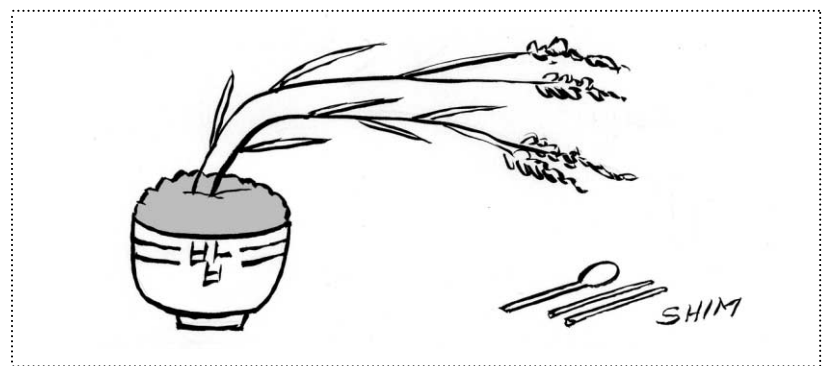
받겠습니까. 스님네들 중에 그의 궤적을 내놓고 따라할 파천황의 용기 혹은 만용(萬勇)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 따라한다고 해도 불교계가, 아니 그러도 은처(隱處)로 은밀히 몸살을 앓고 있는 판에, 원효처럼 장가를 들고 애를 낳겠다고 나서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은커녕 용납되거나 할 것입니까. 하여 원효의 삶은 따라해서는 안되는 '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말 기이한 사대 아닙니까. 위대하

꾸만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선도 또한 이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대역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화와 금기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불교라고 해도, 우리를 부자유와 비참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을 불교만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원효를 그만 해방시켜주세요. 원효 자신이 그렇게 우상화되고 소외되어 오느라 얼마나 분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신화와 금기로 박제화된 천재 '원효'

원효 신화이면서 금기인 인물

원효는 한국불교사의 다시없는 거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효만큼 신화가 된 인물이 드물고, 또 한편 원효만큼 금기인 인물이 다시 없습니다. 누가 그를 안다 하겠습니까. 산중에서 좌선에 들었다고도 어느날 숲집에서 건달들과 어울리고, 거룩하게 경전을 해설하다가도 다음날은 아이들과 표주박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노는 이 불기(不羈)의 인물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종잡을 수 없는 고베졸린 말'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 당대에 전해진 팔만 사천의 법문, 그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불교의 교설을 한 손에 장악한 사람이 다시 누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불교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불교사의 장관입니다. 팔만의 법문이 서로 엇갈려보이지만 기실, 같은 진실의 서로 다른 얼굴



'신화'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를 말하면 언필칭 떠올리는 <대승기신론소나 <금강삼매경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개의 해설자들은 여전 난해한 한문 두 그대로서 무슨 얘기를 하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 바람에, 원효는 위대하다고는 하나, 무엇이 위대하자는 모르는 기이한 사제가 여전 반복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을 따라하고 행적을 본

다지만 그를 이해할 수 없고, 존경하지만 본받아서 안되는(?) 이 모순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엇갈리는 동거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화와 금기를 깨고, 원효를 보는 법을 배웁시다. 오랜 박제를 깨고 원효를 우리 삶 속으로 불러오는 노력 없이는 원효 조차, 지옥업이 될지 모릅니다. <금강경>은 그 우상화의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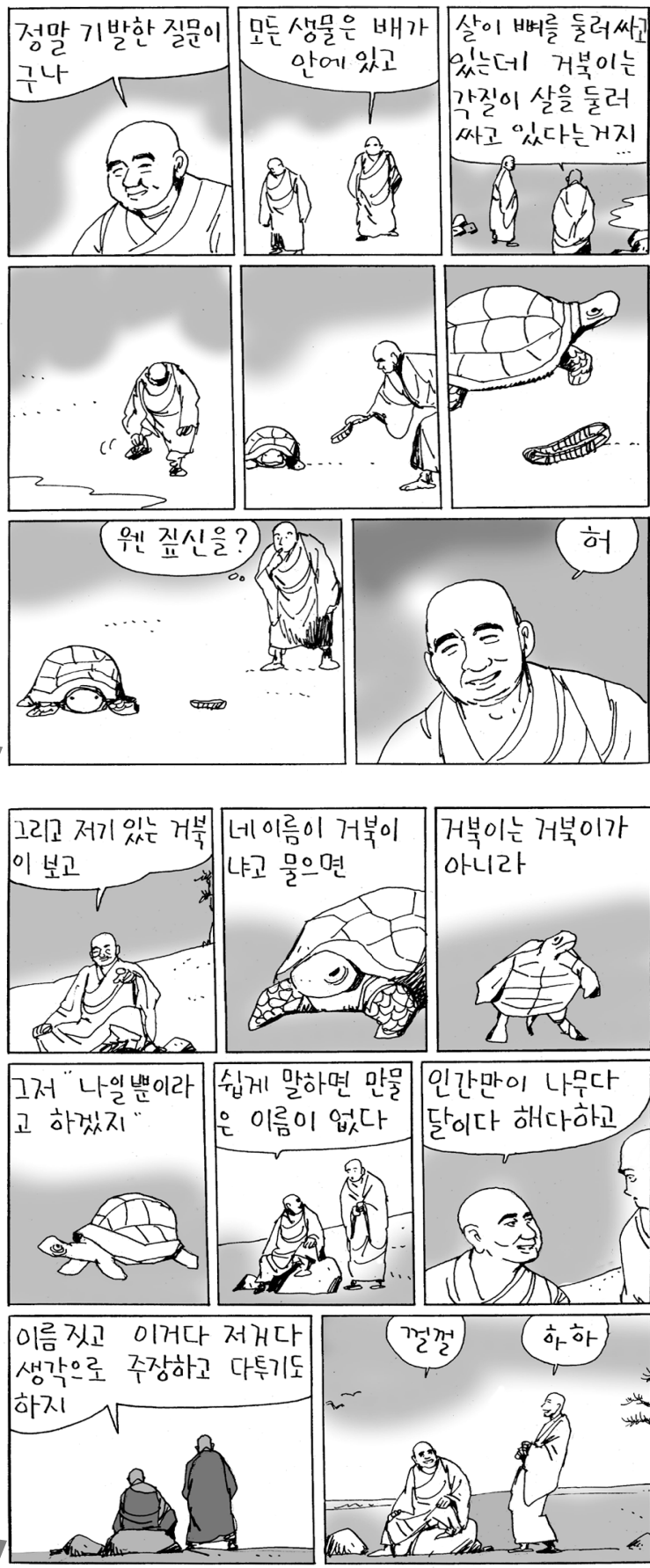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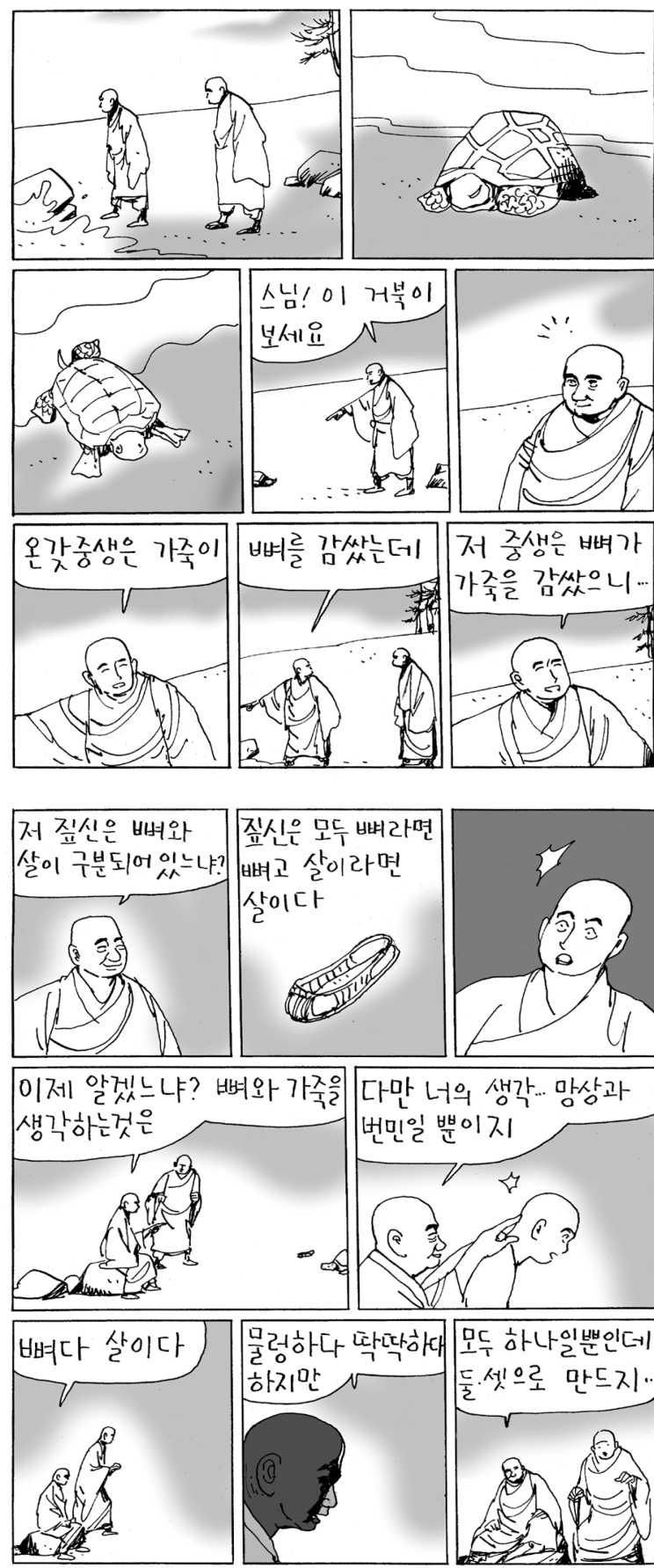
불기(不羈)의 삶, 그리고 화엄의 교학사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원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삶에 더 깊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환상 없이 다가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들려주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보여주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불교는 곧 그의 삶입니다. 그의 불기(不羈)의 삶은 그의 오랜 불교적 모색의 귀결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효의 불교는 경전에 대한 주석의 형태라 되어 있어, 독특한 개념과 어법, 그리고 논리와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취지를 읽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재해석하는 활간(活潑)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삶과 교학 사이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불교가 곧 그의 살인을 수수께끼처럼 알려주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가 쓴 <진역 화엄경소(晉譯華嚴經疏)>의 서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사파라...

법진 대사의 '이름'



조태호



대수 법진(834-919): 당말(唐末) 스님. 남악 문하. 위산영우 휘하에서 득도하고, 복주대안(福州大安)의 법을 이음. 저서로 <대수(大隨)개산 신조서언어록>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수행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불성을 보아서 견성한다'는 사람들이 견성성불(見性成佛)하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또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도 말합니다. 과연 불자들은 수행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진)

답1: 불법의 핵심은 연기법입니다. 즉 법성(法性)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연기법이며 연기는 곧 불(佛)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불성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유가 법성의 실현이므로 불교는 그 법성이 나타나고 작용하는 바를 깨달아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지요. 해탈을 무슨 노력 얻는 것처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탈입니다. 실망하실지 모르나 불법의 해탈은 번뇌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수행을 통해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금강소석)

답2: 수행을 하는 이유는 불법의 정수인 '연기법'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럼 연기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나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만들어진 세계 속에 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케 하는 것입니다. (까막눈)

답3: 수행해서 구하는 것은 연기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연기법의 바름(正)은 그 법을 세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해 '자명명법명'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정(正)의 기준, 청정(淸淨)의 기준을 바로 알기 위해 연기법의 이치를 꿰뚫고 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수행자가 연기법을 그냥 몇 번 듣는다고 해 단박에 이해할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연기법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를 앞세운 수행, 즉 스스로 점검하며 가는 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기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만물이 부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는 '연기즉불(緣起即佛)'의 가르침입니다. 이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수행은 이런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학자)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5x15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5.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 1. <화엄경>에 수록된 것으로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서술함 2. 내각을 개편하는 것 3. 고려중기의 노비해방운동으로 주동자는 최충현의 노비임 4. 파장이 25mm 이상인 적외선 5.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통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 6.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음. 비속한 말은 우이독경 7.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

- 1. 지난해 농가의 식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음식 4-5월경에 이르는 말 8. 포유강(哺乳綱)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9.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음' 10. 해상에서 배를 습격하여 재물을 강탈하는 도둑 11. 관우(關羽)가 타던 말 12. 의술과 약으로 병을 고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면허를 받아야 함 13.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데로 옮김 14.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15. 부처를 일컫는 10가지 칭호 중 하나로 아라한의 준말.